

#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9)

## - 금산군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금산군(錦山郡)은 1914년에 진산군과 금산군이 통합되어 전라북도 금산군이 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라북도로부터 충청남도에 편입된 고을이다.

금산은 백제시대에 진내군(進乃郡, 또는 進乃乙郡)이라 하였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경덕왕 때에는 진례군(進禮郡)이라고 고쳤다. 고려시대에는 진례현으로 강등시켜 현령을 두었었는데, 충렬왕 31년(1305)에 이 고을 출신 김신(金旻)이 원나라에 벼슬하여 요양행성참정(遼陽行省參政)이 되어 나라에 공이 있었으므로 지사관이 수령으로 파견되는 지금주사(知錦州事)로 승격시켰다. 조선초기에는 1413년(태종 13)에 도호부 이상 고을에만 ‘州’ 자를 사용하는 조치에 의해 고을명이 금주(錦州)에서 금산(錦山)으로 개칭되었고, 종4품의 군수가 수령으로 파견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전라도에 속했던 금산군은 23부제가 실시된 1895년(고종 32)에 공주부에 속하였다가, 이듬해에 13도제가 실시되면서 다시 전라북도에 속하였으며, 1914년 지방 고을 폐합 당시 진산군과 합쳐져 전라북도 금산군이 되었다.

진산은 백제의 진동현(珍洞縣, 또는 珍洞縣)으로, 통일 신라에서는 경덕왕 16년

(757) 응주도독부(熊州都督府) 관내 황산군(黃山郡)의 영현으로 삼았다. 이곳은 한 때 후백제에 속하였고, 고려시대에는 전주도 관내 진례현(進禮縣)의 임내(任內)였다가, 공양왕 2년(1390)에는 고산현(高山縣)의 감무가 진동현의 업무까지 겸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2년(1393) 왕의 태(胎)가 관내 만인산(萬仞山)에 묻히면서 진주(珍州)라는 지명으로 바뀌고 수령으로 지사관(知事官)을 두어 지진주사(知珍州事)가 부임하였다. 그리고 1413년(태종 13)에 도호부 이상 고을에만 ‘州(주)’ 자를 사용하는 제도에 의해 고을명이 진산군으로 바뀌었으며, 1466년(세조 12)에 부임하는 수령도 지군사에서 종4품의 군수로 정해졌다. 조선시대 전라도에 속했던 진산군은 23부제가 실시된 1895년(고종 32)에 전주부가 아닌 공주부에 속하였다가, 이듬해에 13도제가 실시되면서 다시 전라북도에 속하였으며, 1914년에 금산군에 병합되었다.